

	<h1>보도자료</h1>	2017. 4. 28(금)	
		작성 · 문의	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과장 손동균 / 사무관 김정아 (Tel. 044-200-2397)
* 엠바고 : 4.28(금) 14:30 이후 사용 / 모두말씀 별도배포 # 브리핑 : 4.26(수) 14:00, 정부세종청사, 규제총괄정책관, 규제혁신기획관			

“규제개혁 열차는 계속 달려갑니다”

- 황 권한대행, 규제개혁위원회 개최, 규제개혁 주요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
- 규제개혁 국민토론회 공모 과제 추진결과 보고(별도 보도자료)

< 주요내용 >

- 정부는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4.28(금)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동원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들과 관계장관으로 구성된 정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9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.
 - * (안건) “규제개혁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.”(규제개혁 성과와 과제)
- 이번 회의는 그간 추진해 온 규제개혁 주요성과를 점검하고, 향후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
 -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(총5회) 과제* 이행실태 점검 결과, 총 929개 과제를 발굴하여 885개(이행률 95.2%) 개선 완료
 - * ▲중소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방안, ▲신산업 규제혁신, ▲선제적 규제정비
 - 권한대행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(‘16.12.28),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(‘17.2.16), 규제개혁 국민토론회(‘17.2.22) 과제* 이행실태 점검 결과, 총 599개 과제를 발굴하여 288개(이행률 48%) 개선 완료
 - * ▲조달규제 혁신 ▲소상공인 청년창업 규제개선 ▲인공지능 핀테크 규제혁신 ▲민생규제 혁신 등
 - 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(총8회) 과제* 이행실태 점검 결과, 총 812개 과제 중 644개를 개선키로 하여 483개(이행률 75%) 개선 완료
 - * ▲40년만의 보세공장 규제혁신, ▲해양레저 산업 규제완화 등
 - 그 외에도 규제혁신문고,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, 규제비용관리제, 규제정보포탈 강화, 전국규제지도 공표, 신산업투자위원회 등 그간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였다.
- 황 권한대행은, ‘규제개혁에는 마침표가 없다’ 면서 중단없는 규제개혁을 강조하였고,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역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□ 정부는 **황교안 권한대행** 주재로 4.28(금)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동원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들과 관계장관으로 구성된 정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**제39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**하였다.

*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장 2인(국무총리·민간위원장) 포함 20~25명 이내로 구성(임기 2년)

□ 이번 회의는 그간 추진해 온 **규제개혁 주요성과를 점검**하고, **향후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**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, 주요 성과는 아래와 같다.

○ **(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, 총5회)** 정책안건*(20건) 및 지역 현장건의 과제(92개) 이행실태 점검 결과, 총 929개 과제를 발굴하여 **885개(이행률 95.2%) 개선 완료**

* ▲중소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방안, ▲신산업 규제혁신, ▲선제적 규제정비

○ **(권한대행 주재 회의체, 총3회)**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('16.12.28),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('17.2.16), 규제개혁 국민토론회('17.2.22)에서 제안된 과제* 이행실태 점검 결과, 총 599개 과제를 발굴하여 **288개(이행률 48%) 개선 완료**

* ▲조달규제 혁신, ▲소상공인·청년창업 규제개선, ▲인공지능·핀테크 규제혁신, ▲민생규제 혁신 등

○ **(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, 총8회)** 정책안건*(15건) 및 지역 현장건의 과제(78개) 이행실태 점검 결과, 총 812개 과제 중 644개를 개선키로 하여 **483개(이행률 75%) 개선 완료**

* ▲40년만의 보세공장 규제혁신, ▲해양레저 산업 규제완화 등

○ 아울러 규제개혁신문고를 수용률 40% 수준*에 도달하도록 운영하고, **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**을 통해 손톱밀가시 972건을 개선('16.12월말 기준)하는 등 **'국민이甲이 되는 규제개혁'**을 추진하여 왔다.

* 규제건의 10,079건 중 4,010건 수용('17.3월말 기준), 대부분 국민생활·자영업자 관련 규제

- **규제비용관리제 전면실시**(‘16.7월) 이래 반기 성과로 총 5,586억 규제 순비용을 감축하였으며, **네거티브 규제 원칙**을 적용하고 **규제정보 포털을 강화**하는 등 **‘규제시스템 혁신’**을 위해 노력하였다.
- 뿐만 아니라, 건축·산업 등 11대 분야 **지방규제를 전수 조사**하여 불합리한 6,400건 자치법규를 정비하고, **전국규제지도를 공표** 하여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**경제활동 친화성***을 제고하는 등 **‘지방규제 혁신’**을 추진해 왔다.

* 상위 S·A등급 지자체 대폭 증가(‘14년말 68개→’16년말 135개)

- 이밖에 4차산업 대비 민간전문가로 **신산업투자위원회**를 구성하여 무인이동체·ICT 융합·바이어헬스 등을 대상으로 **‘신산업 규제혁신’**을 이루어 왔다.

* ▲자율차 임시운행 구간과 드론 사업범위 네거티브 전환, ▲세계최초 IoT 전용 전국망 구축, ▲응급상황 시 3D 프린팅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 허용, ▲비트코인 제도화 근거 마련 등

□ 아울러, 정부는 앞으로도 **4차 산업혁명 대비 규제혁신, 일자리 창출**을 위한 규제 혁파, **민생안정**을 위한 규제개선을 위해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.

□ 회의를 주재한 **황교안 권한대행**은 이날 회의에서

-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**‘돈 안 들이는 투자’인 규제개혁이 매우 중요하며,**
- **‘규제개혁에는 마침표가 없다’**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, 국민들이 실질적 변화를 느낄 때까지 **규제개혁 열차는 중단 없이 달려가야 한다고** 역설하였다.
- 또한 **규제개혁위원회**가 지금까지 열정을 다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대한민국 **규제개혁의 파수꾼**이라는 굳건한 사명감으로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역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※ 별첨: “규제개혁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.”(규제개혁 성과와 과제) PPT

- 설 치 :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 ('98.4.16 발족,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)
- 구 성 : 위원장 2인(국무총리, 민간위원장) 포함, 20~25인으로 구성(법 제25조)
 - 당연직(8) : 국무총리(위원장), 기재부·행자부·산업부·안전처 장관, 국조실장, 공정거래위원장, 법제처장
 - 위촉직(17) : 규제개혁 관련 경륜과 지식을 갖춘 민간인
- 기 능 (법 제24조)
 -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·발전
 - 기존규제의 심사,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
 - 신설 및 강화규제의 심사, 규제개선 의견수렴 및 처리
 -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·평가 등
- 민간위원 임면 (법 제25조, 제27조)
 - 위원 임기 : 2년 (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)
 - 위촉 :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
 - 해촉 :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,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